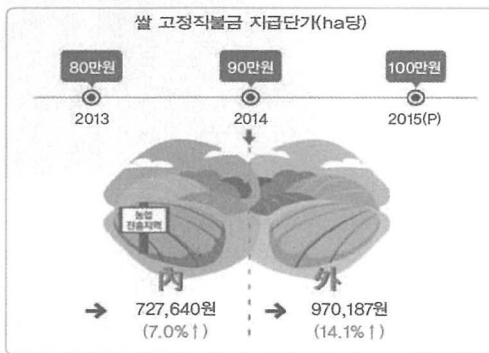


## 농업동향

### ❖ 2014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단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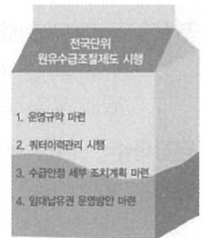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ha당 농업진흥지역 안 97만187원, 농업진흥지역 밖 72만7,640원으로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85만127원, 비진흥지역 68만102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진흥지역은 12만60원, 비진흥지역은 4만7,538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다.

이번 쌀 고정직접지불금 인상은 최근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향후 100만 원/ha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쌀 고정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 전국단위 원유 수급조절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 인 원유수급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유거래 및 쿼터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자율에 의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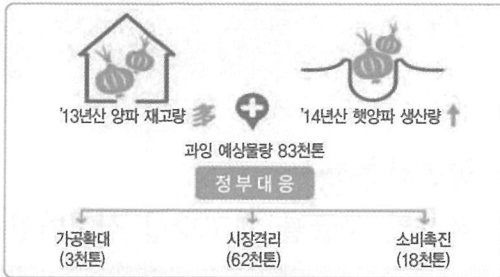


이는 2013년 6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수요자·정부 간 합의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낙농수급조절 협의회에서 마련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집유주체 소속 낙농가가 보유한 원유생산 쿼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쿼터이력관리」가 시행된다. 쿼터는 '전국쿼터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변동사항은 쿼터이력관리부에 기록하며, 쿼터 매매 시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발급한 쿼터이력부 첨부 의무화하였다. 둘째, 원유 수급 불균형이 전망될 경우 명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원유수급 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낙농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낙농인 육성을 위해 임대납유권 운영방안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 낙농산업이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도 품질 좋은 우유 및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양파 수급안정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열린 농산물수급조정 위원회에서 '2014년도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양파 과잉 공급 물량은 지난해 저장양파 1만3,000톤과 2014년산 조생종 1만 5,000톤, 중만생종 5만5,000톤 등 모두 8만3,000톤에 달한다.

실제 양파 가격은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월 중순 이후 도매가격이 513원/kg 내외로 하락 하였으며, 이는 평년의 50% 수준에 불과한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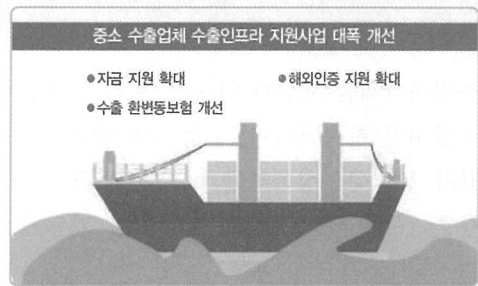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도 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과잉물량 8만3,000톤(저장양파 1만3,000톤, 햇양파 7만톤)에 대해 가공확대, 시장격리, 소비촉진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3년산 양파 재고량 동향과 2014년산 햇양파의 작황 및 가격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급여건 변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 양파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확대를 당부하였다.

## ❖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캐나다 FTA와 대중국 수출 확대 등 급변하는 농식품 수출 환경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업체에 지원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올해 4,200억 원(전년 대비 8.5% 증가)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총사업비의 80%에서 90% 이내로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액의 3배까지 지원하며, 새롭게 3,0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장기화된 엔저(低)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업체에는 보다 효과적인 손실보상 지원의 일환으로 기존상품의 보상조건을 강화한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새로이 도입·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비용부담 완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할랄(Halal) 인증을 비롯하여 글로벌 인증 등 특정국 수출 시 필요한 인증 및 등록제도 취득을 지원하는 '수출 농식품 인증·등록 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더 많은 농식품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사업 지원을 확대"했다며 "우리 농식품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신규시장 개척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